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 『壯策粹』에 나타난 대책문의 수사법에 대하여

노요한 |

/ yhnoh1214@gmail.com

1. 들어가며
2. 『장책수』 簡介
3. 『장책수』 수록 대책의 수사법 분석
4. 나오며: 성적의 근거

【국문초록】

고려대 만송문고에는 『장책수』(만송 D5 A83)라는 서명의 대책문 모음집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선조-인조연간 문과 殿策 문답을 淨寫한 것으로, 일부 답안을 제외하면 답안 마지막에 답안 작성자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답안의 답성자들을 『문과방목』에서 확인해 보면 이 답안들은 모두 장원 혹은 亞元의 성적을 거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책문 작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제자인 군주의 마음을 얻어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대책문의 기본 형식과 단락 구성 방식은 어떠하며, 답안 작성자들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주제 의식과 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본고는 『장책수』 수록 답안을 개괄하고 심우정의 답안을 일례로 대책문의 수사법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장책수』, 과거, 전책, 수사법, 심우정

1. 들어가며

고려대 만송문고에는 『장책수』(만송 D5 A83)라는 서명의 대책문 모음집이 수장되어 있다. 이 책은 표지가 결락되고 본문 앞부분이 일실되어 원제를 알 수 없다. 도서관에서 서명을 ‘壯策粹’라고 게시해 둔 것은 표지가 없이 보존되어 있는 책의 첫 면에 근대 이후 누군가가 백지 제첩에 매직펜으로 써 둔 것을 따른 것이다. 이 제첩의 작성자는 알 수 없다. ‘壯策粹’라는 서명은 대부분의 다른 과시 자료와 마찬가지로 서목이나 기타 기록에 보이지 않으며, 제첩 작성자가 ‘壯元을 차지한 殿策의 精粹’라는 의미에서 임의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과책은 크게 문과 초·복시 종장에서 시험되던 執策과 殿試에서 시험되던 殿策으로 나뉜다. 내용에 따라서는 당대의 폐단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시무책과 해당 사안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묻는 역대책[史策]으로 나뉜다. 또한 단락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策問의 질문에 따라 단락을 구성하는 축조식과 史實을 검토하여 현재의 폐단을 구할 계책을 제시하는 구폐식으로 나뉜다. 축조식은 특별한 구성 없이 책문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단락을 구성하는 방식이고, 구폐식은 사책과 시무책의 내용이 혼합된 형태로, 史實에 근거하여 현재의 폐단을 구할 계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¹⁾ 또한 과문 선집은 모의 문답을 수록한 것과 실제 과거에서 출제·제출된 문제와 답안을 수록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대책문 작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출제자인 군주의 마음을 얻어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策題는 어떠한 사안을 수험생들에게 묻고 있으며, 답안 작성자들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수사 방법을 사용하였을까. 또 답안의 기본 형식

1) 이상욱(2015), 15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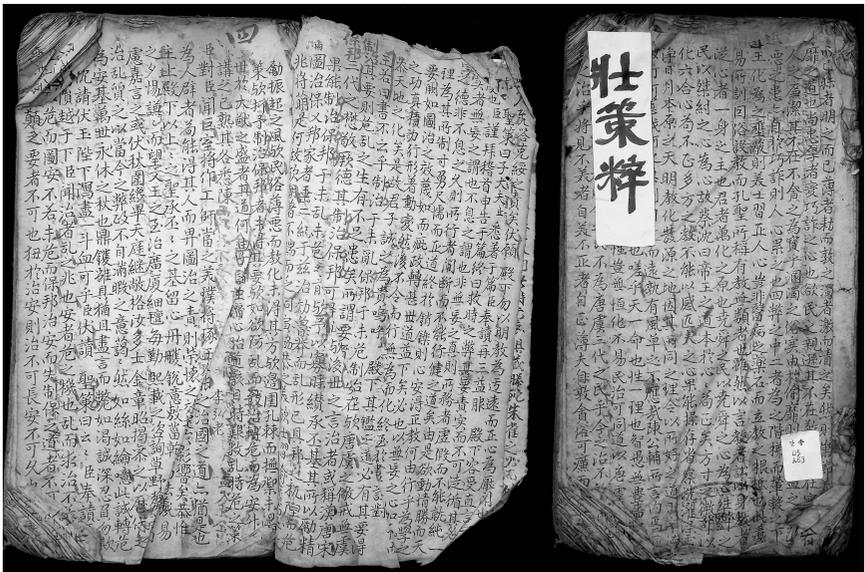
과 단락 구성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점이 출제자의 마음을 움직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최종적으로는 모범 답안으로서 후대 사람들의 학습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본고는 『장책수』에 수록된 심우정의 답안을 일례로 그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장책수』 簡介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 『장책수』는 전책 대비 수험서로 선조-인조 연간 문과 전책에서 실제 제출된 답안 48편을 문제와 함께 수록하고 있다. 『장책수』의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 筆寫本 1冊 : 無罫, 15행 30자, 30.2 × 16.9 cm.
- 表題: 표지 결락(본문 1면, 백지 제첩에 매직펜으로 ‘壯經粹’)
- 內容: 선조-인조연간 문과 장원책 48편 수록
- 註記: 서명은 표제입/ 이면에 명리학 관련 內容 기재/ 본문 이면에 “장안 오걸번님뇌야”로 시작하는 한글가사 기재



〈그림 1〉 『壯策粹』(만승 D5 A83)의 표제(우)와 李弘老 답안 부분(좌)

이 책은 앞 부분의 일실된 것을 포함하여 선조-인조연간 문과 전책 문답을 정리하였으며, 일부를 제외하면 답안 마지막에 답안 작성자를 함께 기록해 두었다. 답안 작성자의 경우 후대에 추가적으로 기입된 것도 있으며, 일부 작성자에 대해서는 성적과 순위 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었다. 답안 작성자를 추기한 사실에서, 당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답안들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사본의 형태나 구술의 형태로 두루 회자되고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답안 수록 명단을 방목 정보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弘老(1560~1612) [문과] 선조 16년(1583) 癸未 정시 甲科 壯元 (01/10)

沈友正(1546~1599) [문과] 선조 16년(1583) 癸未 별시 甲科 壯元 (01/33)

- 金德謙(1552~1633) [문과] 선조 16년(1583) 癸未 별시 乙科 3위(04/33)
- 鄭 澈(1536~1593) [문과] 명종 17년(1562) 壬戌 별시 甲科 壯元
(01/25)
- 鄭熙績(1541~?) [문과] 선조 1년(1568) 戊辰 증광시 甲科 壯元
(01/33)
- 李忠元(1537~1605) [문과] 명종 21년(1566) 丙寅 별시 甲科 壯元
(01/17)
- 李德馨(1561~1613) [문과] 선조 13년(1580) 庚辰 별시 乙科 亞元
(02/27)
- 柳 根(1549~1627) [문과] 선조 5년(1572) 壬申 별시 甲科 壯元(01/16)
- 閔仁伯(1552~1626) [문과] 선조 17년(1584) 甲申 별시 甲科 壯元
(01/10)
- 柳德種(1532~?) [문과] 선조 12년(1579) 己卯 식년시 乙科 2위
(05/34)
- 李惟誠
- 任 拯(1547~?) [문과] 선조 12년(1579) 己卯 식년시 丙科 1위
(11/34)
- 金 梲(1540~1621) [문과] 선조 15년(1582) 壬午 식년시 丙科 19위
(29/35)
- 趙 璞(1540~1621)
- 洪聖民(1536~1594) [문과] 명종 19년(1564) 甲子 식년시 丙科 4위
(14/33)
- 閔德鳳(1519~1573) [문과] 명종 15년(1560) 庚申 별시 甲科 壯元
(01/18)
- 趙守寅(1568~?) [문과] 선조 30년(1597) 丁酉 별시 甲科 壯元
(01/19)
- 曹 倬(1552~1621) [문과] 선조 32년(1599) 己亥 별시 甲科 壯元

- (01/16)
- 李時禎(楨)(1568~?) [문과] 선조 33년(1600) 庚子 별시 甲科 壯元
(01/16)
- 金壽賢(1565~1653) [문과] 선조 35년(1602) 壬寅 별시 甲科 壯元
(01/11)
- 李命俊(1572~1630) [문과] 선조 36년(1603) 癸卯 정시 甲科 壯元
(01/10)
- 洪千璟(1553~1632) [문과] 광해 1년(1609) 己酉 증광시 甲科 壯元
(01/33)
- 李尙弘(1559~1596) [문과] 선조 17년(1584) 甲申 별시 乙科 亞元
(02/10)
- 閔希顔(1578~1646) [문과] 인조 7년(1629) 己巳 별시 乙科 探花郎
(03/25)
- 沈 演(1587~1646) [문과] 인조 4년(1626) 丙寅 별시 甲科 壯元(01/16)
- 蔡裕後(1599~1660) [문과] 광해 13년(1621) 辛酉 별시 丙科 30위
(34/40)
- 金起宗(1585~1635) [문과] 광해 10년(1618) 戊午 증광시 甲科 壯元
(01/40)
- 黃女[汝]—(1556~1622) [문과] 선조 18년(1585) 乙酉 별시 乙科 亞元
(02/12)
- 李 厚(1585~1613) [문과] 선조 36년(1603) 癸卯 정시 丙科 5위(08/10)
- 吳達濟(1609~1637) [문과] 인조 12년(1634) 甲戌 별시 甲科 壯元
(01/12)
- 沈世鐸(1601~?) [문과] 인조 12년(1634) 甲戌 별시 乙科 探花郎
(03/12)
- 石之珩(1610~?) [문과] 인조 12년(1634) 甲戌 별시 乙科 亞元
(02/12)

鄭文翼(1571~1639) [문과] 광해 3년(1611)辛亥 별시 甲科 壯元(01/13)
趙緯漢[韓](1567~1649) [문과] 광해 1년(1609) 己酉 증광시 甲科 亞元
(02/33)

金孝達

柳道三(1609~?) [문과] 인조 10년(1632) 壬申 알성시 乙科 亞元
(02/05)

李穡

『장책수』의 성책 연대는 답안 수록자의 생몰년과 책의 상태로 보아 17세기 중반-18세기 초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에는 가장 중요한 어휘에 찍은 旁點(○), 단락을 구분 지은 撇(丿), 중요한 구절을 표시한 抹(|) 등이 후대인에 의해 표시되어 있고, 천두에는 대책문의 주제, 대책문의 구성을 보여주는 設·救·終 등의 형식어, 단락 구성의 주제어 등이 기입되어 있다.

한편 『장책수』는 본문의 안쪽 면에 후대인들에 의한 낙서가 있는데, 명리학 관련 내용, “장안오걸번님뇌야”로 시작하여 앞 부분에서 과거 시험 준비의 내용을 노래한 한글가사 등을 기재하고 있다.

3. 『장책수』 수록 대책의 수사법 분석

대책은 잘 알려져 있듯이 국왕이 시무나 경의, 혹은 역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문제에 대해 응시자가 그 해결 방안이나 해답을 진술한 것이다. 전책의 경우 크게 策題의 大旨를 서술하는 虛頭, 책제 중의 요지를 서술하는 中頭, 책제의 질문 내용을 조목별로 진술하는 逐條, 폐단을 진술하는 設弊, 폐단의 원인을 진술하는 原弊, 폐단을 바로잡는 方策을 진술하는 救弊, 더 아뢰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하는 篇終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臣對’·‘對’·‘臣問’ 등의 기두어, ‘臣謹對’·‘謹對’ 등의 결미어, ‘臣伏讀聖策曰’·‘臣讀聖策曰’·‘聖策曰’·‘嗚呼’·‘伏願’ 등의 상투어가 더해진다. 허두와 중두는 오늘날의 서론, 축조·설폐·원폐는 본론, 구폐는 결론, 편중은 여론에 해당한다.²⁾

전책은 16세기 중반부터 구폐식 단락 구성 방식이 대세가 되고,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신복독성책왈’을 중두와 당금 그리고 편중의 첫머리에 써서 세 단락을 구성하는 이른바 구폐식 시무 전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³⁾ 『장책수』 역시 주로 17세기에 작성된 전책 답안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따라서 답안들 역시 구폐식 시무 전책의 형식을 띄고 있다. 이하 『장책수』 수록된 대책문 중 천두에 후대인의 수기로 “足食足兵由於進賢退邪”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沈友正(1546-1599)의 답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우정은 본관은 靑松, 자는 元擇으로, 할아버지는 通禮 沈達源, 아버지는 선공감첨정 沈鎡, 어머니는 具思謙의 따님이다. 1564년(명종 19) 생원을 거쳐⁴⁾ 1583년(선조 16) 별시문과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⁵⁾ 이후 典籍·형조좌랑을 거쳐 持平·正言, 호조·예조·형조·공조의 좌랑, 전라도도사·海運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16년 별시문과에서 출제된 전책은 다음과 같다. 밑줄과 함께 굵게 표시한 곳은 후대인에 의한 방점(○)이 표시된 부분이고, 밑줄은 후대인에 의한 抹(|)을 의미한다.

2) 김동석(2021).

3) 이상욱(2015), 165~168면.

4) 『嘉靖四十三年甲子七月二十日司馬榜目』에 “[생원] 明宗 19년(1564) 甲子 式年試 3등 41위(71/100)”라고 나온다.

5) 『국조문과방목』에 선조 16년(1583) 癸未 별시 甲科 壯元(01/33)이라고 나온다.

王若曰, ① 當今之務, 可言者多矣. 姑以禦敵一事言之, 不過曰足兵足食. 足兵足食之外, 亦有先後本末之可言歟?

② 尹吉甫贊周以北伐, 只言孝友之張仲, 衷度相唐以東討, 只去奸邪之元穰, 諸葛亮出師, 捲捲於賢臣小人之說. 夫君子小人, 於用兵之間, 若不相及, 而數子深以爲言, 而不及於兵食何歟? 李綱之爲高宗謀也, 亦引此爲言, 必先以正朝廷爲本, 其意安在? 設使能辨賢邪以正朝廷, 國無兵食, 則將何以戰守歟?

③ 予以否德, 叨守丕基, 方切侮予之歎, 未得濟艱之策, 邊烽驛遞, 報急相望, 師老河上, 奏凱無期, 予不克知, 由予左右臣鄰所以告予者, 無嘉謨嘉猷歟, 抑兵糧告匱, 備禦疏虞, 雖有智者, 亦無如之何歟, 於前數子之說, 有所未盡而然歟? 如欲正朝廷以禦外侮, 民生奠枕, 措國勢於泰山之安, 其道何由?

子諸生必有能言者, 其各悉陳之, 予將親覽焉.

‘王若曰’로 시작되는 위의 대책문은 ‘足兵足食’을 키워드로 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묻고 있다.

- ① 禦敵에 있어 ‘足兵足食’ 이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② 足兵足食 이전에 進賢退邪하여 正朝廷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朝廷을 바르게 하고 外侮를 막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대책의 큰 주제가 되는 ‘足兵足食’은 주지하듯이 『논어』 「안연」에 나오는 말이다. 곧, “자공이 정치를 물으니, 공자께서 ‘양식을 풍족히 하고 병사를 풍족히 하면 백성이 믿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공이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하자 ‘병사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자공이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하자,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子貢問政.

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曰：“去兵。”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曰：“去食。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라고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논어』는 풍족한 병사와 식량보다 중요한 것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책은 ‘足兵’과 ‘足食’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도 백성에 대한 신뢰로 문제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서 책문은 尹吉甫, 裴度, 諸葛亮 등의 역사 사실을 예로 들고는 병사를 쓰는 일에 있어 군자와 소인은 아무 상관없이 없는 듯한데 여러 현인들이 병사와 식량의 문제를 제쳐두고 이에 대해 깊이 언급한 이유를 물었다.

또 李綱이 고종을 위해 모의하면서 그 말을 인용하되 반드시 먼저 조정을 바르게 하는 것[正朝廷]을 근본으로 한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아무리 현명한 자와 사된 자를 구분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더라도 나라에 병사와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물었다. 곧 足兵足食의 문제를 백성의 신뢰의 문제에서 進賢退邪의 문제로 전환하고는 어찌서 현인을 등용하고 사된 자를 물리쳐 조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 足兵足食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그런데 책문에서 “이강이 고종을 위해 모의할 때 또한 이 말을 인용하여 먼저 조정을 바르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李綱之爲高宗謀也，亦引此爲言，必先以正朝廷爲本，其意安在?]”라고 한 것은 『宋名臣言行錄』 別集下卷 「李綱 忠定公」에 나오는 이강의 일화를 말한다. 곧, 이강은 고종이 『裴度傳』을 내리자 차자를 올려 제갈량, 윤길보, 배도의 일을 들어 군자·소인의 엄격한 구분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 책문의 해당 문제는 『宋名臣言行錄』의 해당 내용을 참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上[高宗: 필자주]錄裴度傳賜公[李綱: 필자주], 公入筓子言: “諸葛亮出師表謂, 親賢臣遠小人, 此先漢之所以興隆也. 親小人遠賢臣, 此後漢之所以傾頹也. 夫君子小人於用兵之間, 若不相及, 而亮深以爲言者, 誠以寇攘外患, 有可掃除, 而小人在朝, 蠹害本根寢長, 難去其患, 有不可勝言者. 是以吉甫贊周以北伐, 必有孝友之張仲, 裴度相唐以東討, 必去奸邪之元稹. […]”

그런데 이 별시가 시행된 선조 16년, 곧 1583년은 尼湯介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癸未之亂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였다. 계미지란은 당시 조선의 변방 장수들의 횡포와 여진족 내부의 세력 다툼이 원인이 되어 여진의 추장 니탕개가 조선의 함경도 阿山堡와 慶源鎭 일대를 대규모로 침입했던 사건으로 니탕개와 조선의 전투는 7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이 계미지란은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니탕개가 7월 防垣堡를 공격했다가 큰 피해를 입음으로써 종료되게 된다.⁶⁾ 『선조실록』에 의하면 이 별시는 계미지란 직후인 8월 24일에 시행되었다. 곧 선조 16년 8월 24일 기사에 “상이 仁政殿에 나아가 別試文科의 殿試에 출제를 하고, 또 弘化門에 나아가 武科의 전시를 치루었는데 무과는 입격자가 5백 명이었으며 모두 3일간에 걸쳐 끝났고, 內禁衛의 吳定邦이 장원하였다.”⁷⁾라고 나온다. 이 책문은 계미지란과 같은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 책문에 대한 沈友正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臣對. 臣山野樸愚, 無所知識, 只念聖上在上, 而國家多虞中, 夜撫枕達, 朝

6) 송우혜(2005); 윤호량(2012).

7)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8월 24일 계유(1583, 명 萬曆11). “癸酉/上御仁政殿, 文科別試殿試出題後, 又御弘化門, 殿試武科, 入格五百人, 凡三日乃畢, 內禁衛吳定邦爲壯元.”

不寐竊, 自隱度於心, 亦有深憂長慮, 不勝其耿耿之懷也. 適值主上殿下, 方慮外患益軫內憂, 特進臣等于庭, 懇求救之之策. 臣內顧欲然, 何足以奉大對? 然承問而對, 臣之職也, 寫誠無隱, 臣之忠也. 敢不昧死一披肝膽?

심우정은 ‘臣對’의 투식으로 시작하는 대책문의 서두에서, 먼저 나라에 대한 걱정은 많으나 이 대책문을 작성하기에 자신의 자질이 부족함을 서술한다. 그리고는 ‘그러나[然]’로 문세를 전환한 후 책문을 받들어 대책문을 올리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고 성실한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것은 신하의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며 답안을 써내려 간다. 물론 이것은 대책문의 일반적인 서술 형식을 따른 것이다.

① **聖策曰**云云, 臣聞兵者, 國之所賴而存者也. 食者, 兵之所資而生者也. 故洪範八政, 一食八師, 陸贄論道, 足食理兵, 此有國家之所當急急而不容少緩者也. 然則其所以備邊境禦寇敵之策, 豈外於斯二者? 雖然寇敵在外, 四肢之疾也. 內政不理, 心腹之患也. 心腹寧則四肢自安, 朝廷理則邊患自息. 故先安心腹整理本朝, 則邊圉之策, 軍旅之務, 舉而措之, 而區區外夷之患, 不足爲國家之虞矣. 自古圖治之君, 多不曉本末之所在, 先後之有序, 而殿下當內外多艱之日, 聖慮及此, 實我東方無疆之福也. 漢臣傅燮曰, 治水不自其源, 則末流彌增其廣, 伏惟聖上留意焉.

심우정은 禦敵에 있어 足兵足食 이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먼저 ‘聖策曰云云’이라고 하여 책문의 내용을 伏讀한 후 자신의 답안을 이어나간다. 먼저 병사는 나라가 여기에 의존하여 보존하는 바이고 식량은 병사가 이를 바탕으로 생존하는 바이므로 이는 국가가 마땅히 급선무로 여겨야 하며 변경의 寇敵을 막는 일 역시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자신의 답안을 서술하기에 앞서, 책문에서 ‘현재의 시무 중에서 禦敵의 일로 말할 것 같으면 足兵足食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책문의 의도에 따라 足食足兵이 禦敵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재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심우정은 앞서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비록 그러하나[雖然]’로써 단락을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자신의 답안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이때 심우정은 寇敵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로 비유하되, “寇敵은 바깥에 있으니 四肢의 질병이고 內政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心腹의 질환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사지의 질병이 지엽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心腹의 질환이므로 사지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心腹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논리에서 寇敵의 문제는 문제의 지엽에 해당하고 그 근원이 되는 것은 內政에 있으므로, 寇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內政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곧, 책문에서는 內政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寇敵과 內政의 문제를 지엽과 근원의 문제로 설정하여 답안을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묻는 책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우정은 이어서 心腹이 편안하면 四肢가 저절로 편안해지듯이 朝廷이 다스려지면 邊患은 저절로 그칠 것이라는 자신의 핵심 주장을 서술한다.

또한 예로부터 훌륭한 정치를 도모한 군주들이 본말의 소재와 선후의 순서를 잘 알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이에 대해 고려한다면 실로 우리 동방의 무궁한 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後漢의 충신 傅燮이 “물을 다스림에 그 근원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말류에 가서는 더욱더 넓어진다.[治水不自其源, 則末流彌增其廣.]”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였다. 그리고는 ‘伏惟聖上留意焉’이라는 투식어를 써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한다.

그런데 寇敵의 문제가 단순히 寇敵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內政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곧, 책문은 두 번째 질문에서 足兵足食 이전에 현명한 자를 등용하고 샀던 자를 물리쳐 조정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책문의 출처지는 寇敵의 문제를 內政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거꾸로 말해 답안 작성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전제로 받아들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聖策曰云云, 臣聞古之賢臣, 爲其君討亂於外, 莫不以內治爲先, 故獬豸匪茹六月興師, 而吉甫所稱, 只言張仲之孝友, 河朔不臣, 天討方急, 而襄度所斥, 寔是元稹之奸邪, 獎率三軍北伐中原, 臨行拜表, 其所以惓惓者, 不過親賢遠奸之一言, 則諸葛之意可見. 噫! 賢邪進退, 非軍旅之務也. 兵食規畫, 乃禦侮之要也. 而數臣之所勉者, 不在彼而在此者, 豈不以治亂之本在人, 而本舉則未無不治, 故完其本末, 而知所先後也歟? 忠臣謀國, 大抵如是, 故李綱之相宋也, 亦以正朝廷百官爲本, 而其於君子小人之分, 是非賞罰之際, 孜孜陳戒而三致意焉. 綱之忠千載可尙, 而惜乎時君不能從其言, 而綱終被斥, 汪黃見信, 使朝廷不正, 中原未復, 誠後世之所鑑戒者也. 吁! 世之人君, 苟能辨別不差舉措當理, 識其賢者而必用之, 舍其不賢者而必退之, 以正百官以正朝廷, 則兵可調而使足, 食可措而使裕, 以戰則勝, 以守則固矣. 賢者之於國家, 其效如此, 伏惟聖明留意焉.

심우정은 足兵足食 이전에 進賢退邪하여 正朝廷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聖策曰云云’이라고 하여 책문의 내용을 伏讀한 후 자신의 답안을 이어나간다.

먼저 옛날의 賢臣들이 바깥으로 난을 토벌할 때 내치를 우선으로 하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하며, 獬豸이 스스로를 헤아리지 않자 6월에 병사를 일으

켜 이를 토벌하되 윤길보가 다만 張仲의 孝友만을 칭송한 일, 河朔이 臣服하지 않아 天討가 급하였는데 褻도가 배척한 것은 간사한 元稹이었던 일, 제갈량이 삼군을 이끌고서 북벌을 떠남에 임하여 표문을 올리며 근심해 마지 않았던 것은 親賢遠奸의 한 마디에 지나지 않았던 일 등 책문에서 언급한 윤길보, 배도, 제갈량의 일을 다시 인용한다.

이어서 심우정은 ‘噫’라는 감탄사를 넣어 주의를 환기한 후, 앞 단의 서술을 이어받아 ‘賢邪進退’가 본이 되고 ‘兵食規畫’이 말이 된다고 하는 자신의 핵심된 주장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곧 ‘賢邪進退’의 문제는 軍旅의 시무가 아니며 ‘兵食規畫’은 禦侮의 요점인데도 여러 賢臣들이 권면한 것이 ‘兵食規畫’에 있지 않고 ‘賢邪進退’에 있었던 것은 治亂의 근본이 결국은 사람에게 있으며 근본이 거행되면 말엽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賢邪進退’는 군사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兵食規畫’과 본말의 관계에 있다고 설정한 것은 앞서 寇敵이 말이 되고 內政이 본이 된다고 한 서술을 이어받은 것이자 내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군자와 소인을 잘 변별하여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쳐야 한다는 두 번째 문제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우정은 이어서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서 역대 충신들이 모두 그러했다고 하면서 문제에서 언급된 李綱의 역사적 사례를 거론한다. 곧 이강이 송나라 재상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朝廷과 百官을 바르게 하는 것을 본으로 삼았으며 君子·小人의 구분과 是非·賞罰의 사이에서 부지런히 힘쓰고 마음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강의 충심은 천년에 숭상할 만한 것이거늘 당시 군주가 그 말을 따르지 않아 끝내 배척되고 간신 汪伯彥과 黃潛善이 신임을 얻어 조정이 어지러워지고 중원을 회복하지 못한 일을 서술하여 이것이 실로 후세 사람들의 鑑戒가 된다고 하였다.

심우정은 다시 한번 ‘吁’라는 감탄사를 삽입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후 賢人

을 등용하여 正百官하고 正朝廷하면 병사와 식량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거듭 강조하며 두 번째 책문에 대한 답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곧 군주와 변별에 착오가 없고 舉措가 사리에 맞아서, 현명한 자를 알아보아 반드시 등용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버려서 반드시 물리침으로써 백관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한다면, 병사를 조련하여 충족하게 할 수 있고 식량을 조처하여 넉넉하게 할 수 있어, 전쟁을 하면 이기고 수비를 하면 견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심우정은 마지막으로 국가에 있어 현자의 효과는 이와 같다고 하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안에서와 마찬가지로 ‘伏惟聖明留意焉’이라는 말로 두 번째 책문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한다.

③ 聖策曰云云予以否德云云,

臣伏睹殿下自卽寶以來,

文治既洽, 武備亦修,

× × × ○

開防有截, 鎖鑰克壯,

○ × × ×

三陲晏如, 四夷守在.

○ ○ ○ ×

而傾緣邊將非人, 懷柔失策

○ × ○ ○ ×

百年內向之虜, 一朝猖然而噬

○ × × ○ ○ ×

兇鋒所至, 重陣坐陷, 堂堂國家受侮多矣.

○ × × × ○ ○ ○

自是以後, 兵連不休,

× × ○ ○

零賊竊發，江南之丁壯斬截

× × ○ ○ ×

虜騎飛渡，天塹之長江莫保

○ × × ○ ×

徒添防戍之卒，未得制勝之策，

○ × × × × ×

羽樹交馳於漁陽，烽火相望於甘泉，

× ○ ○ × × ○

淮西之征師已老，東南之財用已竭，

○ ○ × ○ × ×

醜虜射天之計益固，將士奏凱之日無期，

× ○ × × × × × ○

則一國兵力，將盡於此，百年舊疆，幾不能守，

× × × × ○ ○ × ×

則宜殿下之軫念至此，而未得其由者也。

嗚呼！爲殿下運籌於帷幄中者，

必有股肱之良，左右之弼，

× ○ ○ × ×

而未聞畫一策，出一計，

× ×

決勝千里之外，折衝樽俎之間，

× × × ○ × ○

而多殷浩之忽忽，有愧黃裳之才略，

× × × ○ ×
 則殿下之左右，雖謂之無其人可也，
 × × ×
 廊廟之謀猷，雖謂之未盡可也。
 × ○ ×
 朝廷之上，苟有經國之大才，
 ○ × × × ○
 冕旒之下，亦有入告之嘉謨，
 ○ × × × ○
 則今日之兵糧，豈至於匱，
 × ○ × ×
 今日之備禦，豈至於疏乎？
 × × × ○
賤臣在野，路阻君門，朝廷之賢否，誠不得以知也。
 ○ × × ○ ○ × × ○

 竊以今日之施措，揆今日之人才，
 × × × ○
 則其於前數子之說，亦有所未盡也。
 × × ×
 臣雖疏遠，念係君父，
 × × × ×
 目見時事，心竊悼悶，
 × × × ○
 每欲陳達，口噤心悸，
 × × × ×

殿下既已發端，臣何敢復有所諱乎？

嗚呼！臣於人才邪正，未暇論辨，而殿下視今日之朝廷，果何如也？臣於此不敢言也不敢言也

嗚呼！上下失同寅之和，士林無雍穆之風，

× ○ ○ ○ × ○

巖廊之上，鼎席俱空，搢紳之間，衆情傾軋，

○ × × ○ ○ ○ ×

是非紛紜，國論靡定，

○ ○ × ×

中外惱懼，蹙蹙靡騁，惴惴焉，若不保朝夕，

× × × × × × ×

則軍旅之務，孰主張是，而兵食之策，誰籌畫是？

× × × × × × ○ ×

【救 正朝廷】

噫！朝廷，四方之本也。

今日之朝廷，不正甚焉，則邊備之不靖，非無慮也。

× ○ × ○ × × ×

今日之內患，若是之甚，則外夷之患，非所慮也。

× × × × ○ × ○

伏願，殿下憂其所當憂，慮其所當慮，

使方寸之地，虛明廣大，

<p> × × ○ × 照臨之際, 平正中和, ○ × × ○ 是非極其公, 而絕偏係之私, × ○ ○ 用舍盡其明, 而無偏黨之累, × ○ × 群臣之賢否, 莫逃於鑑空, ○ × ○ ○ 議論之異同, 不差於衡平, × ○ × ○ 使賢者上, 不肖者下, ○ × × 有德者在位, 有才者在職, × × ○ × 則百僚師師, 群臣穆穆, ○ × ○ × 咸囿於保合太和之化, × × ○ × 胥躋於崇禮敦讓之風矣. ○ ○ × ○ 夫如是則百官自正, 朝廷亦正, ○ × ○ × 同心戮力, 以獎王室, ○ × × × 內治既盡, 外攘益嚴, </p>

× × × ○

其如足兵裕食之要, 飭邊禦戒之策, 舉在於措置中耳.

○ × × ○ × ×

可以致生民之奠枕, 可以措國勢於太山矣.

○ × × ○

尙何足以勤聖慮哉? 伏願殿下加意焉.

책문은 세 번째 질문에서 먼저 변방의 봉화와 驛遞가 연이어 위급함을 보고하는데 外侮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이는 좌우의 신하들이 좋은 계책을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식량이 다하여 방어가 영성해져서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앞서 언급한 현신들의 설이 미진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묻는다. 책문은 이처럼 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반론을 든 후 朝廷을 바르게 하고 外侮를 막아서 민생을 편안하게 하고 國勢를 태산과 같이 안정되게 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것은 문제해결에 있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론에 대한 반론을 함께 들고 있지만 두 번째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답안 작성자에게 이 반론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보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락의 특징을 꼽는다면 전체 단락을 변려문풍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려문풍’이라고 한 것은 위의 답안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4자, 5자, 6자, 7자, 8자 등의 글자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단락 전체를 駢偶의 형태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변려문에서 규정하는 駢偶의 규칙은 대개 지키고 있으나 平仄相對의 규칙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본격적인 변려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심우정은 앞서의 단락과 마찬가지로 ‘聖策曰云云予以否德云云’이라고

하는 말로 답안을 써내려 간다. 먼저 임금이 즉위한 이래 문치가 흠족하게 되고 武備 또한 잘 다스려졌으나 변방 장수에 책임자가 가지 않고 회유 정책이 실책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入朝하던 오랑캐들이 하루아침에 사납게 돌변했다고 하였다. 변세의 군사적 문제는 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심우정은 이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외침과 곤경들을 서술한 후 ‘嗚呼’라는 감탄사를 넣어 주의를 환기하고 이것이 인재가 조정에 올바르게 등용되지 못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곧 조정 상에 經國의 大才가 있고 군주에게 올리는 좋은 계책이 있다면 오늘날의 병사와 식량이 고갈될 일이 없으며 오늘날의 방비가 소홀해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심우정은 이어서 ‘竊以’라는 상투어를 쓰고는 지금의 조치와 지금의 인재가 앞서 언급한 여러 현신들의 말에 비추어 보면 미진한 바가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자신의 해결 방안 서술하기 시작한다. 곧 상하가 同寅의 화합을 잃고 사림에 雍穆의 풍습이 없어지면 조정에 정승의 자리가 텅 비게 되고 사대부 사이에 알력이 생겨, 시비가 분분해지고 국론이 정해지지 않아 조정 안팎이 번뇌하여 두려워서 달려나가지 못하여 마치 아침저녁을 보존하지 못할 듯이 두려워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軍旅의 시무와 兵食의 방책을 주장하고 계획할 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하였다.

심우정은 이어서, 후대인이 해당 부분의 천두에 ‘正朝廷’이라고 요약해 기입해 두었듯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자 답안의 주제가 되는 조정을 바르게 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서술한다. 곧, 조정은 사방의 근본인데 오늘날의 조정은 올바르게 못함이 심하므로 변방 경비가 편안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염려할 것이 못 되며, 오늘날의 내환이 이와 같이 심하므로 外夷의 환란 역시 우려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임금이 자신의 마음을 虛明廣大하게 하여 照臨할 때에 平正中和하게 된다면, 시비가 매우 공정해지고 사람을 등용하고 물리침에 그 밝음을 다하며, 현명한 자가 높은 관직을 얻고 불초한 자는 낮은 관직에 있으며, 덕이 있는 자가 지위를 얻고 재주 있는 자가 직분을 얻게 되어, 백관이 서로 본받고 군신이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되면 백관이 절로 바르게 되고 조정 또한 바르게 되어, 같은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왕실을 장려하면 내치가 다하게 되고 外攘은 더욱 엄정하게 되므로, 足兵裕食의 요점과 飭邊禦戒의 방책은 모두 이러한 조처 속에 들어있게 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國勢를 태산과 같이 안정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朝廷을 바르게 하고 外侮를 막아서 민생을 편안하게 하고 國勢를 태산과 같이 안정되게 한다는 것은 곧 책문에서 질문된 것이기도 하다. 곧 심우정은 그에 대해 ‘使方寸之地, 虛明廣大, 照臨之際, 平正中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는 그 효과로서 ‘百官自正, 朝廷亦正’, ‘致生民之奠枕, 措國勢於太山’의 목표를 이루게 됨을 역설하였다. 마찬가지로 단락의 마무리는 ‘伏願殿下加意焉’이라는 투식어로 짓고 있다.

【終 正心】

④ **聖策曰**云云, 臣新從下土來, 未知朝廷之體, 忠之所激, 言不知裁, 不恤觴忤, 而竭盡底蘊. 篇之未矣, 更有一言, 則亦不孤殿下厚望也哉. 謹拜手稽首, 申告于終曰, 邊境之本, 在於朝廷, 而朝廷之本, 又在於殿下之一心. 伏願, 殿下正心以正朝廷, 則朝廷上下, 靡一不歸於正矣. 雖然心不能以自正, 必須懋時敏之功, 加不息之誠, 然後心可得以正, 而無差謬之失矣. 漢臣董仲舒告武帝曰,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此雖以老儒之陳言, 人君爲國, 舍此而無他道也. 伏願殿下, 勿以是厭聞焉, 則國家幸甚. 臣謹對.

마지막으로 篇終은 더 아뢰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餘論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종에서 심우정은 편의 마지막에 다시 한마디 말씀을 올린다고 하며 앞서의 서술을 종합하고 대책의 요점과도 관련된 내용을 첨언하면서 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먼저 심우정은 “변경의 근본은 조정에 있고 조정의 근본은 또 전하의 마음에 있다[邊境之本, 在於朝廷, 而朝廷之本, 又在於殿下之一心]”라고 하여 앞서 펼쳤던 대책 전체의 강령에 해당하는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는 ‘엎드려 바라건대[伏願]’라고 하여 독자인 군주에 대한 당부의 말로서 ‘마음을 바르게[正心]’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곧 심우정은 전하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면 조정의 상하가 바름으로 돌아가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나, 마음은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민첩하게 행하는 공부[時敏之功]’에 힘쓰고 ‘쉬지 않는 정성[不息之誠]’을 더한 연후에야 마음이 바르게 되어 조금의 잘못도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곧 마음의 주인으로서 쉬지 않고 마음을 닦아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심우정은 다시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한다.[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고 한 동중서의 말을 인용하여 변경의 문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군주의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자신의 입론을 강화하고 있다. 이 말은 『한서』 『동중서전』, 『자치통감』 등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심우정은 이 말이 비록 老儒의 陳言이지만 군주된 자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버리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군주의 ‘正心’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심우정은 마지막으로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를 듣기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국가의 행복이 클 것입니다. 신은 삼가 대답합니다.[伏願殿下, 勿以是厭聞焉, 則國家幸甚. 臣謹對.]”라는 대책문의 투식으로 답안을 마무

리 지었다.

4. 나오며: 성적의 근거

이상 심우정의 『장책수』에 수록된 대책문 중 선조 16년 별시문과에서 출제된 전책과 그에 대한 심우정의 답안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 문제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천두에 후대인의 수기로 “足食足兵由於進賢退邪”라는 제목이 달려 있으며, 『논어』 『안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논어』는 풍족한 병사와 식량보다 중요한 것으로 백성들에게서 신뢰를 얻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 전책은 ‘足兵’과 ‘足食’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도 尹吉甫, 喪度, 諸葛亮이 병사를 쓰는 일에 있어 병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보이는 군자와 소인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곧 백성들의 신뢰가 足兵足食에 우선한다고 하는 『논어』의 구절을 가지고 오되 이를 進賢退邪의 문제로 전환하고는, 進賢退邪를 통해 조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어찌서 足兵足食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국조방목』(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貴11655] 등)에 의하면 심우정의 답안은 선조 16년(1583) 계미년 별시 갑과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심우정의 답안이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우선 심우정의 답안이 대책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형식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책문의 형식이 법전에 의해 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虛頭, 中頭, 逐條, 設弊, 原弊, 救弊, 篇終 등 대책문이면 으레 지켜야 할 대책문의 기본적인 단락 구성 방식을 심우정의 답안은 잘 준수하고 있다.

둘째, 책문은 당시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계미지란의 변란을 계기로 『논어』의 ‘足兵足食’의 구절을 인용하여 外患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을 물었다. 심우정은 이에 대해 外患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足兵足食’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朝廷 내부를 바르게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였다. 곧 변세에서의 군사적 문제를 조정 내부의 다스림의 문제로 환원하고는, 사지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心腹을 잘 다스려야 하듯이 변세의 환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정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심우정은 이에 더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서 올바른 신하를 구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곧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고 사된 신하를 물리치면 백관이 올바르게 되어 조정이 바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外患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外患의 문제는 조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그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써 ‘賢邪進退’, 곧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고 사된 신하를 물리친다고 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賢邪進退’는 다름 아닌 책문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곧, 책문은 ‘足兵足食’ 이전에 ‘進賢退邪’하여 ‘正朝廷’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데, 심우정은 여러 가지 역사 사실과 비유를 들어 ‘進賢退邪’이 ‘正朝廷’의 해결 방안이자 궁극적으로는 外患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됨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 구성은 책문의 출제자가 문제를 통해 의도한 답안이기도 하다.

넷째, 심우정은 위와 같은 자신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한 논거로서 문제에서 언급된 李綱의 역사적 사례를 거론한다. 심우정은 이강이 송나라 재상으로 있으면서 항상 朝廷과 百官을 바르게 하는 것을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은 일, 그를 위해 君子와 小人의 구분, 是非와 賞罰의 구분에 가장 힘썼던 사실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이강이 배척되고 간신 汪伯

彦과 黃潛善이 신임을 얻자 조정이 어지러워지고 중원을 회복하지 못한 일을 함께 서술하여 자신의 입론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강화하였다. 이 역시 책문의 출제자가 문제를 통해 의도한 답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심우정은 편중에서 “변경의 근본은 조정에 있고 조정의 근본은 또 전하의 마음에 있다[邊境之本, 在於朝廷, 而朝廷之本, 又在於殿下之一心]”라고 하여 외환이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조정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여 외환의 문제를 군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심학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 이는 治國平天下는 군주의 正心誠意에 달려 있다고 하는 주자학의 기본적인 원리론에 입각한 문제 해결 방안이면서, 궁극적으로 신하는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聖君으로 만드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자학의 또 다른 원리론에 충실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심우정의 답안은 주자학의 강령에 입각하면서도 책문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었기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壯策粹』,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 필사본(청구기호: 만송 D5 A83)

2. 논저

김동석(2021),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송우혜(2005),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72, 역사비평사.

심경호(2021), 『1634년 별시 책문의 정치성』, 『문명과 경계』 4,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문제연구원.

윤호량(2012), 『선조 16년(1583) ‘니탕개의 난’과 조선의 대응』, 『군사』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욱(2015),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의 제공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한국고전적종합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The Rhetoric of Topical Replies from *Changch'aeksu* (壯策粹) Housed in the Mansong Library of Korea University

Noh, Johann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A collection of topical replies, one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Chosŏn Korea, entitled *Changch'aeksu* (壯策粹, D5A83), is housed in the Mansong Library of Korea University. This anthology, which includes both questions and answers papers of this examination written during the reign of King Sŏnjo and Injo, even contains names of candidates at the end of the answer sheets except several ones. These candidates were thought to win in the first or second place, referring to *Roster of Examination Graduates* (文科榜目, *Mun'gwabangmok*)

The ultimate purpose of writing topical replies is to captivate heart of the reigning monarch who set questions of the exams, and acquire a high score. What is the basic format and paragraph composition of the answer papers, and what subject matters and rhetoric methods are used? This paper adumbrates the answer sheets compiled in *Changch'aeksu* and illustrates how the rhetoric is applied from that of Sim Ujŏng.

【Keywords】 *Changch'aeksu*, Civil Service Examination, Topical Replies, Rhetoric, Sim Ujŏng

본 논문은 2023년 3월 11일 투고되어 2023년 3월 23일 심사를 완료하여
2023년 3월 27일에 게재를 확정하였음